20130306 vol.101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을 준비하자!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Contents

1.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
2. 2주갑에 대한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준비 현황
3. 타 기념사업의 최근 사례
4. 2주갑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5. 정책적 제언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장 세 길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을 준비하자!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Ⅰ.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

Ⅱ. 2주갑에 대한 정부 · 지자체 · 민간단체의 준비 현황
1. 기념사업 계획수립 현황
2. 문제점과 과제

Ⅲ. 타 기념사업의 최근 사례
1. 임진란 7주갑(420주년) 기념사업
2. 5 · 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
3. 사례의 시사점

Ⅳ. 2주갑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1. 기념사업의 방향
2. 기념사업의 목표와 사업구상
①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행사
②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의 현대적 계승
③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문화자원화
④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

Ⅴ. 정책적 제언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3월 6일 vol.101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약

1.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재스민혁명 계기로 반외세 · 반봉건 내건 동학농민혁명이 새롭게 주목받음
- 지금까지의 기념사업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둔 반면, 앞으로의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에 집중해야 함
- 전국의 민 · 관 · 학 기관 · 단체가 주도하는 1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함
-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정신문화 진작이 포함돼 있음. 이와 관련된 사업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이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동학농민혁명 2주갑기념 사업은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임

2. 정부 · 지자체 · 민간단체 등 2주갑 중요성 인식 부족, 미흡한 기념사업 계획

- 동학농민혁명 2주갑의 의의와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기관·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수립이 미흡함
-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의 기념식과 축제가 구상 중이며, 2주갑 의의를 되살리고 세계적 혁명공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은 눈에 띄지 않음
- 정부 기관으로서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사업 추진체계 구성과 공론의 장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
- 임진란 420주년, 5 · 18 민주화운동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적이면서, 대중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었음. 즉,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음

3. 제언 : 2주갑기념사업추진위 구성, 국가예산 확보 위한 재단-도-정치권 공조체계 구축

-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의 위상 정립이라는 비전 아래 ▲ 2주갑 기념행사, ▲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의 현대적 계승,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문화자원화(콘텐츠 개발), ▲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구상해야 함
-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기념재단-전라북도-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동학농민혁명2주갑기념사업추진위를 구성하고, 2주갑의 의의를 정립하는 공론의 장부터 기념사업의 계획,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3~4월에 해당 부처와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함. 따라서 2주갑기념사업추진위를 조속히 구성해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재단-전북도-정치권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함

Ⅰ.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재스민혁명 계기로 반외세 · 반봉건 내건 동학농민혁명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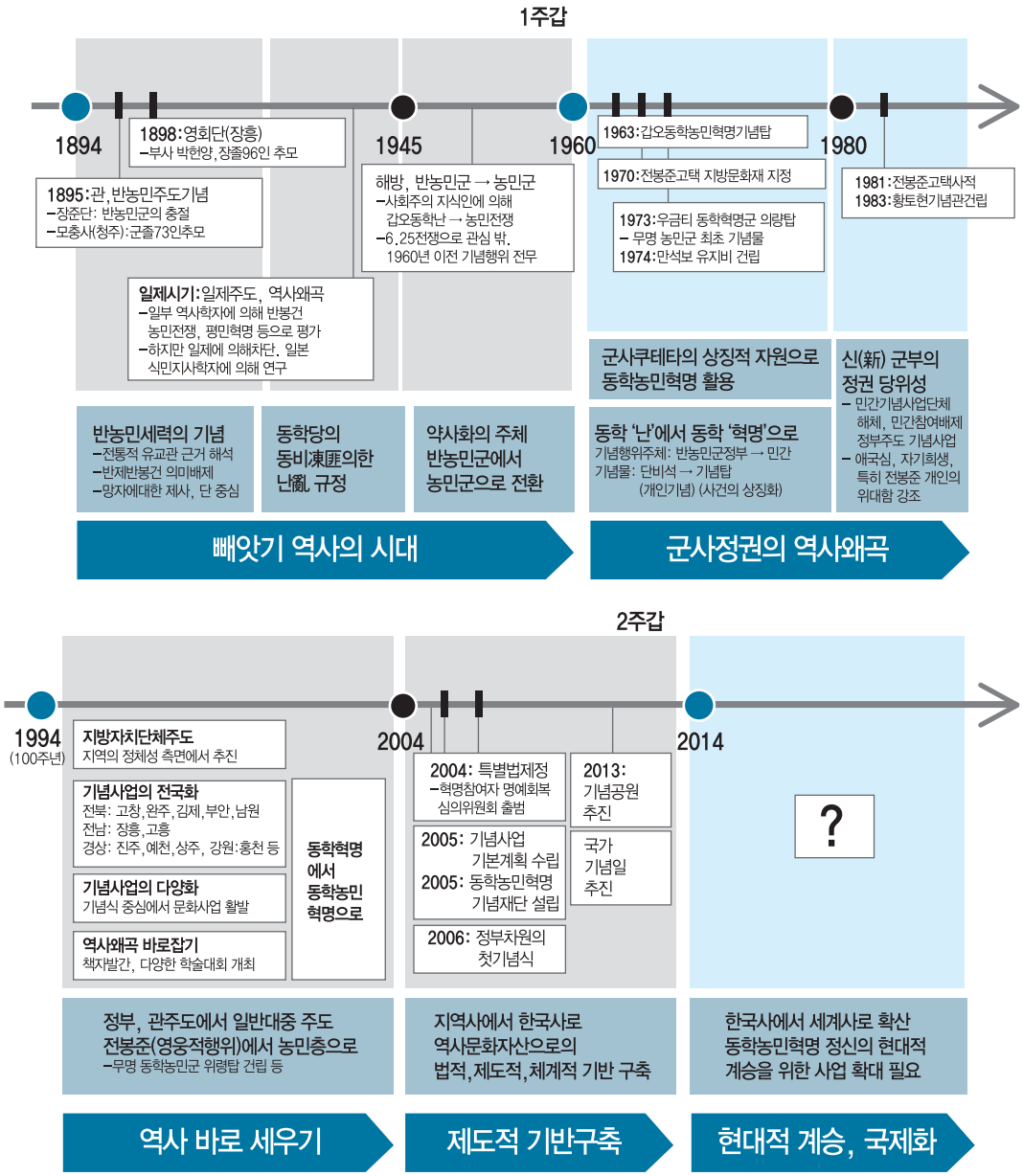
- 2010년 12월 튀니지 노점상의 분신으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은 튀니지·이집트·리비아 등에서 시민의 힘으로 장기집권 독재자를 축출한 시민혁명으로, '아랍의 봄'으로 불림
- 2011년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Occupy Wall Street(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신자유주의의 심장 뉴욕 월스트리트를 점령함
- 아랍에서 불기 시작한 시민혁명,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이 새롭게 주목받음

■ 지금까지의 기념사업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둔 반면, 앞으로의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에 집중

- 1주갑이 될 때까지 동학당의 난(亂)으로 인식되었으나, 1960년 이후 군사쿠데타정권 및 신(新)군부 상징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동학'난'에서 동학'혁명'으로 인식됨. 100주년이 되어서야 왜곡됐던 역사가 바로 서기 시작했으며, 동학혁명이 아닌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리면서 근대 시민혁명으로서 위상 확립됨
-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수법인으로 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기념사업의 기반으로서 기념공원 조성, 국가기념일 제정 등이 추진 중임
-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여전히 축제 · 기념제 등 행사성 선양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단위보다는 지방차원에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는가 하면,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할 뿐 반외세 · 반봉건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전략이 없음
- 2주갑(120주년)이 되는 2014년은 지금까지 형성된 기반을 토대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계승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프랑스시민혁명, 독일농민혁명, 중국태평천국의난, 동학농민혁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함

■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미흡. 120주년을 계기로 지방 단위에서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현대적 계승으로 기념사업 방향 전환 필요

- 정부는 2012년 임진란 420주년(7주갑) 기념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함
-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미완료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의 위상에 부합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전국의 민·관·학 기관·단체가 주도하는 120주년 기념사업 통해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지자체, 민간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특히 1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을뿐더러, 정부(재단)·지자체·민간단체 간 논의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국 지자체·민간단체와 정부·재단이 하나 되어 12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탄생지, 전승지, 선양지로서 전라북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정신문화 진작이 포함돼 있음. 이와 관련된 사업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이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동학농민혁명 2주갑기념 사업은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임

Ⅱ. 2주갑에 대한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준비 현황

1. 기념사업 계획수립 현황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확인(유선상)결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및 기관 등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해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전라북도, 각 시군)는 지역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음
- 기념재단은 120주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임(2월 현재). 하지만 국가기념일과 관련해 지역 · 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기념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 겪음
- 민간단체 역시 120주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거나 논의수준에 머물 뿐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1〉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 준비 현황

구분	1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일을 진행하기에 문광부에서는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 계획 수립 논의, 용역 계획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내부 논의 중
정읍시	내부적으로 120주년 기념사업 논의 및 계획 구상 중
고창군	내부적으로 구상 중이나, 현재 확정된 특별한 계획 없음
남원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각 및 재조명을 위하여 3월 중에 연구 용역사업 발주 예정
완주군	현재 확정된 특별한 계획 없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20주년 기념하여 전주에 '전주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 건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장기포기념제 행사(매년 음력 3월 20일)를 내년에는 좀 더 큰 축제로 만들 예정임. 구체적인 상황은 하반기 중 고창군과 협의 예정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현재 확정된 특별한 계획 없음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보은 지역은 올해를 120주년으로 봄. 따라서 올해 4월 26~27일 국제학술대회 '보은시회120주년기념국제학술세미나' 를 준비 중임.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 위치한 백화산 교살바위를 유적지로 등록 예정이며, 관련 학술연구를 진행할 예정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콘서트를 개최할 예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논의만 있는 정도임

2. 문제점과 과제

■ 2주갑의 중요성 인식 부족 … 2주갑 준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대체로 2주갑의 의미와 기념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2주갑 기념사업을 매년 반복되는 정례적 행사 정도로 이해하는 기관과 단체가 적지 않음
- 2주갑에 대한 의의를 정립하고 120주년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예) 2주갑 의미와 기념사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

■ 행정 · 기관 · 단체 연계협력체계 미흡 … 기념재단-전북도-민간단체 네트워크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사업 전반을 기념재단에 일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기념재단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
- 그런데 기념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임. 또한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으며, 기념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협력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주갑 기념행사가 지역 차원의 단발성 행사로 기획되고 있음
- 정부 기관으로서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사업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시급함

■ 기념식 · 축제 위주의 단발성 행사 …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화 위한 전략 필요

-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의 기념식, 축제가 구상 중이며, 2주갑 의의를 되살리고 세계적 혁명공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은 눈에 띄지 않음
-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한 문화행사, 역사문화자원화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담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Ⅲ. 타 기념사업의 최근 사례

1. 임진란 7주갑(420주년) 기념사업

■ 사업목적

- 임진란 7주갑(420주년)을 맞아 선현들의 국난극복정신을 추모하고, 임진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민족정신의 원동력을 재조명하기 위함
- 동아시아의 공통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와 학술, 전문가와 일반인, 한국과 세계를 망라하는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제시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3년 2월
- 사업내용 : 기념식, 국제학술대회, 순회특별기획전, 단제사 · 사제사 봉행, 임진란 공신집 발간, 임진란 연구총서 발간 및 고문서 자료집 조사 · 연구, 백서 및 화보집 발간, 홍보사업 전개 등

〈표2〉 임진란 420주년 기념사업 내용 (2012년)

구분	세부행사	내용
임진란 7주갑 기념식	식전행사	• 임진란 7주갑 기념행사 고유(告由)를 위한 사제사 봉행 –임란 9공신 단제사 및 사제사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문충공 류성룡선생 사제사(賜祭祀) 봉행 –장소 :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
	시가행렬	• 안동 웅부공원→국제탈출공연장(기념식 주행사장) 약 2km –임진란 공신 가문의 추모기 들고 임란시 장병행렬 재현
	식전공연	• 임진란 희생자 추모 창작판소리, 국악 등 공연 –지상무예, 검무 등 시연
	공식행사(기념식)	• 장소: 안동 국제탈춤공연장
	식후행사	•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헌정공연
국제학술대회	1차 서울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임진전쟁의 정치와 외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란
	2차 담양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임진전쟁의 사회 · 문화적 변동과 새로운 희망
	3차 부산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임진전쟁과 경제, 전쟁사와 군사사의 새로운 모색
	4차 안동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임진전쟁의 정신사적 의미
순회특별기획전	임진란 7주갑 기념 특별전	• 임진란 공신들의 소장품과 각지의 박물관 등에 보존 · 관리 · 전시되고 있는 임진란 관련 유물과 유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특별기획전을 개최
단제사 · 사제사 봉행	임진란 9공신 단제사 및 사제사 의식 봉행	• 조선시대 순조와 고종 때 봉행되었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시절에도 전승되어 봉행되었던 전통 추모제례 복원
공신집 발간		• 임진란 공신 및 관련 인물의 업적 수록한 공신집 편찬
연구총서 발간, 고문서 자료집 조사·E연구	임진란 연구총서의 발간	•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그동안 축적된 임진란 연구성과 가운데 가치 있는 중요 논문을 주제별로 집대성
	임진란 관련 고문서 자료의 조사·연구사업	• 임진란 시기에 난국극복에 기여한 공신의 고문서와 고문헌을 조사 · 정리, 사료(史料)로 집성함으로써 임진란 연구 토대 구축
백서 및 화보집 발간		• 임진란 7주갑기념 문화 · 학술 대제전 행사전반을 기록한 백서와 화보 발간

2. 5 · 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

■ 사업개요

- 주제 : 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
- 기간 : 2010년 5월 1일 ~ 5월 30일
- 장소 : 도심 일원(국립5 · 18민주묘지, 舊 전남도청, 5 · 18민주광장 등)
- 주관 : 기념식(국가보훈처), 기타 기념행사(5 · 18민중항쟁 제30주년 행사위원회)

■ 주요행사

- 행사 : 40여개의 시민 · 사회단체 참여, 10개 분야 71개 행사

〈표3〉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 내용 (2010년)

행사명	주관단체
• 민주인권길 및 민주인권 골목 만들기	민주인권마을사업단
• 영상동화를 통한 5 · 18민주열사 김영철의 재조명	광주시민의소리
• 5 · 18 30주년, 새로운 지평을 위한 시민강좌와 토론회	행사위원회, 5 · 18연구소 광주연구소
• 5 · 18 테마지하철운행 '5월...스며들다'	5 · 18기념재단
• 광주지역초등학생 장애인식 개선사업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월에서 시작하는 여성이야기	여성희망포럼
• 무등산 그리고 5 · 18마주보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 5 · 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 5 · 18 민중항쟁 30주년기념 통일영화제	행사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주먹밥 나눔 행사	행사위원회
• 도전! 5 · 18골든벨을 울려라	운암 · 동림추진위원회
• 추모와 계승의 등 밝히기	행사위원회
• 시민과 함께하는 5 · 18 30주년기념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 제21회 전국학생 글쓰기 한마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5 · 18법정 · 영창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음악회	사)5 · 18구속부상자회
• 전국 노동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0 민주성회	행사위원회민주성회
• 전국 대학생 오월 한마당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 오월여성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5 · 18 30주년 '전국문학인대회'	광주전남작가회의
• 5 · 18 역사기행	행사위원회, 역사기행팀
• 2세와 함께하는 5 · 18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상무대 영창, 법정체험 행사	사)5 · 18구속부상자회
• 시도민 대동 한마당	행사위원회
• 망월동 가는 길목 '우리동네 5 · 18'	첨단골열린음악운영위원회
• 청년 민주주의 페스티벌	광주전남청년연대
• 5월 정신 계승 국민대회	행사위원회, 국민대회사업단
•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초청 국제교류사업	사)5 · 18구속부상자회
• 아시아민주희생자연대 회의	사)5 · 18민주유공자유족회
• 추모제	사)5 · 18민주유공자유족회
• 전야제	행사위원회, 전야제준비팀
• 5 · 18 30주년 기념 미사 및 문화행사	천주교광주대교구
• 제23회 전국민족극 한마당 마당극의 기록, 연출의 기억	한국민족극운동협회
• 2010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의 어제, 오늘, 미래'	5 · 18기념재단
• 5 · 18 민중항쟁30주년 기념식후 행사	사)5 · 18구속부상자회
• 5 · 18 영령을 위한 영산 천도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5 · 18 민주영령 합동 천도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 임진택 창작판소리 "오월광주" 초청 공연	행사위원회
• 2010 광주 인권상 시상식	5 · 18기념재단
• 5 · 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연주회 밀러교향곡 제2번 부활	광주시립교향악단
• 민주기사의날 기념식 및 차량시위 재현 행사	사)5 · 18구속부상자회
• 오월창작가요제 '청'	오월창작가요제조직위원회
• 5 · 18 30주년 기념공연	5 · 18기념재단
• 제7회 5 · 18청소년문화제 'Red Festa'	5 · 18청소년문화제추진위원회

(9페이지에서 계속)

행사명	주관단체
• 5 · 18민중항쟁 30주년 나눔 행사	사)5 · 18구속부상자회
• 제8회 전국휘호대회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어린이 인권 평화 한마당	아이 숲 어린이 도서관
• 5 · 18민주화운동 30주년 국제학술대회	5 · 18기념재단
• 부활제	사)5 · 18구속부상자회
• 5 · 18 30주년, 6 · 16 10주년 기념 광주시민 걷기대회	행사위원회, 걷기대회팀
•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위원회, 아름다운가게

3. 사례의 시사점

■ 핵심지역(전라북도)이 주도하되, 기타 지역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구상 필요

- 5 · 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광주이지만 기념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됨. 임진란 기념사업 역시 안동에서 주도했지만 타 지역 참여를 위해 전국 순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함
- 탄생지, 발생지, 기포지, 전승지, 선양지로서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것이 합당하나,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 농민혁명이기 때문에 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기획해야 함

■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행사 성공의 밑거름

- 임진란 420주년, 5 · 18 민주화운동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적이면서, 대중적인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었음: 임진란 기념사업 예산 14억원(국비 7, 도비 2, 시비 5)
- 2주갑 기념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음

■ 학술연구부터 문화행사까지 다양한 행사 마련 … 분절적 행사의 한계

- 임진란 420주년 행사에서 학술대회, 문화행사 통해 경북 · 안동지역 인물을 부각시킴으로서 안동이 임진란 국난극복정신의 중심이자, 임진란 국난극복정신을 안동의 문화자원화 하는 효과를 얻음
- 5 · 18 민주화운동은 대규모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 하지만 행사 간 연계성이 결여된 채 분절적으로 치러져 시민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음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여기에 맞춰 시기별, 지역별 기념행사를 연계하는 종합적 연출계획이 필요함

Ⅳ. 2주갑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1. 기념사업의 방향

■ 전국화 : 지역 단위 사업에서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 전주, 정읍, 고창 등 전라북도 특정 지역만의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동학농민혁명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함

■ 현대화 : 유적지 복원, 축제 · 기념제 중심에서 현대적 계승사업으로 외연 확장

- 유적지와 축제 · 기념제 중심에서 선양사업의 외연을 확장함: 선양사업의 범주를 기념제와 유적지 정비로부터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사업 확장 등

■ 다양화 : 역사적 사건에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 역사적 사건의 기념식 위주에서 전라북도,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함
- 한국적 정신, 전라북도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자원화함: 문화콘텐츠 개발 등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의 정신문화 진작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구상 중으로,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로 계승되도록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정신문화포럼 준비 중)

■ 세계화 :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에서 세계의 근대시민혁명으로 위상 정립

- 한국만의 혁명이 아니라 세계적인 혁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반제반봉건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현대 시민혁명과 결합시키는 학술연구를 진행함

2. 기념사업의 목표와 사업구상

①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행사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가 동참하고,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이 함께 준비하는 동학농민혁명의 2주갑 기념식이 정부 주도로 개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갈등을 보이는 국가기념일 제정문제를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2014년에 국가기념일 선포가 이뤄져야 함
-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전야제처럼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행사 역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대중적 문화행사 위주로 꾸려져야 함
- 동학농민혁명 2주갑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 마련: 예) 정부 기념식 외에 지역별 기념식(탄생, 봉기, 기포, 전승, 선양 등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을 개최,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군의 행군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행사 등

②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의 현대적 계승

- 120년 전의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행사 개최: 예) 보국안민의 현대적 의의를 되살리는 아젠다를 주제로 한 전국농민대회, 세계농민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농민대회 추진 등
- 2주갑의 의미를 되살리고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사업추진: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2주갑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수프로그램 실시, 2주갑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세계적 혁명으로 위상 재정립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③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문화자원화

- 역사적 사건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자원 승화시키는 콘텐츠 개발 전략 및 사업 필요: 예)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공연 개발 (100주년 기념공연인 〈천명〉 재공연 고려), 스토리텔링 공모 통한 콘텐츠(영화, 드라마, 공연) 개발 지원 등
-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동학축제처럼 '동학' 중심이었던 기존 문화행사 방향을 '혁명' 중심으로 전환: 예) 동학축제를 혁명페스티벌로 전환 등
- 혁명, 민주화운동, 항쟁 등을 상징하던 미술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민족미술전 등 추진 : 과거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작품(걸개그림, 벽화, 판화, 조각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유실되거나 타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음. 예) 대형 걸개그림 전시회 등

④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

- 세계 4개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행사 개최: 예) 중국 태평천국의 난, 프랑스 시민혁명, 독일 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지역의 연구자 등을 초청한 국제 학술대회, 세계적 시민혁명 주요 발생지역 간 네트워크로서 가칭) 세계시민혁명도시네트워크 결성 추진 등
- 2005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년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정읍시, 전주대학교), 201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정읍시) 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위상 재정립 위한 홍보 사업 추진: 예) 동학농민혁명 정보사이트, 스마트 홍보체계(관광 · 교육정보 전달) 구축, 동학농민혁명 문화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등

Ⅴ. 정책적 제언

■ 기념재단-전북도-민간단체 공동 2주갑기념사업추진위 구성

- 동학농민혁명은 군사정권의 역사왜곡이라는 시련을 겪어오면서 혁명적 실천력과 정신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어 왔음.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계승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그 실행주체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간이어야 함
- 동학농민혁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자원화 전략에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임. 동학농민혁명의 탄생지-발생지-기포지-전승지-선양지인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역으로서 2주갑 기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기념재단-전라북도-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동학농민혁명2주갑기념사업추진위를 구성하고 2주갑의 의의를 정립하는 공론의 장부터 2주갑 기념사업의 계획,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함

■ 사업계획 조속히 마련, 기념재단-전북도-정치권의 국가예산 확보 공조체계 필요

- 2주갑의 의의를 살리는 기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예산 프로세스에 따르면 5월 말에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3~4월에 해당 부처와 관련 사업의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2주갑 기념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단일한 논의구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음
- 기념재단-전라북도-민간단체 협력체계를 구축, 조속하게 2주갑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재단-전북도-정치권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함